



스위스재보험 시그마 보고서, 2006 년 세계 잠정 재해 피해액 발표 :

손해보험사에는 평온한 한 해

Contact:

Aurelia Zanetti, Zurich
Telephone +41 43 285 2544

Thomas Holzheu, New York
Telephone +1 212 317 5190

Clarence Wong, Hong Kong
Telephone +852 2582 5644

Media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7171

Swiss Reinsurance Company
Mythenquai 50/60
P.O. Box
CH-8022 Zurich

뛰리히 12 월 20 일 - 잠정추산에 따르면,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해로 2006 년에 총 약 400 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손해보험사들에는 미화 150 억달러에 달하는 보험 손실이 발생하였고, 주로 지진, 한파, 폭풍 및 선박재해로 많은 희생자들을 냈다. 전체적으로 약 3 만 명이 재해로 생명을 잃었다.

약 미화 150 억달러의 보험금 청구

수년간의 기록적인 손실 끝에, 2006 년에는 손해보험사들의 손실이 가벼울 것으로 보인다. 미화 150 억달러에 그친 재해손실은 2005 년과 2004 년의 허리케인 피해로 인한 기록적인 보험금 지불로 인해 고갈된 손해보험사들의 담보력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발생한 2 건의 토네이도와 일본의 태풍 (보험금 손실이 가장 큰 사례 - 불임표 참조) 등 3 건이 수십억달러 규모로 손실이 두드러졌다. 지난 20 년간 2006 년은 1997 년과 1988 년에 이어서 3 번째로 보험금 손실이 가장 낮은 해였다. 이는 주로 미국과 주변 국가들의 허리케인 시즌이 조용히 지나갔기 때문이다. 예년과 달리, 유럽도 지금까지는 큰 재해가 없지만 겨울폭풍 (1999 년의 로사르와 마틴이 좋은 예)과 홍수 (일례로 1993 년의 로우어 라인에서 발생한 "크리스마스 홍수")는 아직 지나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어떤 주요 공업지구도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며, 항공기 추락과 대규모 화재 같은 눈에 띄는 대규모의 인재도 없었다.

경제손실 규모 총 미화 400 억달러로 추정

최대 규모의 손실사례에 대한 지리적 분포상황은 경제적 손실과 보험금 청구금액으로 반영됐다. 2006 년에 발생한 태풍과 지진은 보험 부보가액이 비교적 낮은 신흥공업국가들을 주로 강타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재정손실액은 약 미화 400 억달러로 매우 완만했다. 전 세계의 미화 400 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 중 미화 150 억달러, 즉 3 분의 1 이하가 실제로 보험으로 처리되었다.

3 만명 이상의 재해희생자 보험금 청구

스위스재보험의 시그마 보고서는 약 140 건의 자연재해와 200 건 이상의 인위적 재해를 기록했다. 희생자수는 매년 큰 차이를 보이는데, 2006 년의 경우 3 만명 이상이 자연재해와 인재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최대의 희생자를 낸 것은 지진으로서, 지난 5 월 27 일 진도 6.3 의 지진이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반톨시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다. 7 월 17 일에도 인도네시아는 한번 더 지진피해를 입었으며, 진도 7.7 의 이 지진은 쓰나미까지 일으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희생자수는 800 명에 달했다.

2006 년 필리핀을 강타한 두 건의 자연재해 강풍과

홍수도 1 만 1 천 500 여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지난 2 월, 레이테주에는 지속적으로 내린 비로 발생한 산사태가 주민 약 1 천명의 권사곤 마을을 매몰시켰다. 또 11 월말에는 태풍 두리안 (레밍이라고도 알려졌음)이 몰고 온 폭우로 인해 루손섬의 마운 산에 싸여 있던 화산재가 쏟아져 내리면서 알바이 마을을 비롯한 모든 것을 묻어버렸다. 두리안은 필리핀에서 1 천 270 명, 베트남에서 80 여명의 인명손실을 초래했다.

엘니뇨가 허리케인 형성을 억제

9 월과 12 월 사이에 발생하는 "엘니뇨" 현상은 열대 태평양 분지에서 평균보다 높은 해면온도를 수반한다. 적도 서태평양은 2006 년 가을이래 중형급 태풍활동과 함께 엘니뇨현상을 겪어왔다. 예를 들어 태풍 두리안은 필리핀과 베트남을 유린했으며, 태풍 산산은 일본을 강타했다. 반대로, 열대 대서양 분지에서는 2006 년 여름에 모여드는 엘니뇨 기후 무리가 이미 허리케인의 형성을 약화시키고 있었다. 결국 2006 년에는 6 월초에서 11 월말에 끝나는 미국의 허리케인 시즌에 단지 2 개의 대형급과 5 개의 중형급 허리케인만이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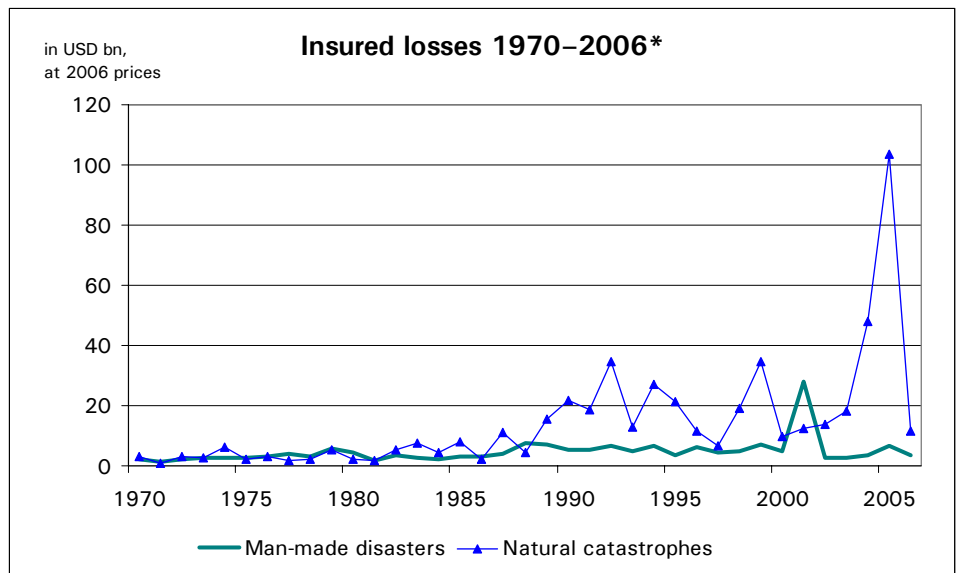
Table: The most costly insured events in 2006

Insured losses (in USD bn)	Date (Beginning)	Event	Country
1 720	13.04.2006	Tornado with winds up to 240 km/h, hail	US
1 282	06.04.2006	Series of tornados	US
1 034	12.09.2006	Typhoon Shanshan	Japan
920	11.03.2006	Tornados, floods	US
560	23.08.2006	Storms, hail, floods	US
500	02.04.2006	Tornados and hail	US

Table: The deadliest catastrophes in 2006

Victims (dead and missing)	Date (Beginning)	Event	Country
5 778	27.05.2006	Earthquake (ML 6.3) destroys the city of Bantul	Indonesia
1 350	26.11.2006	Typhoon Durian (Reming), flash rains, mudslide on Mt Mayon volcano	Philippines
1 333	15.01.2006	Cold spell; power shortages	Eastern Europe
1 026	02.02.2006	Ferry al-Salam 98 sinks off the coast	Egypt
1 000	23.04.2006	Passenger train collides with goods train	North Korea
1 000	12.02.2006	Rain triggers rubble and mudslide	Philippines

Insured claims 1970–2006*



* 2006: provisional figures

New: Natural catastrophe losses also include NFIP flood losses in the US, since 1970

Source: Swiss Re, Preliminary sigma estimates of catastrophe losses in 2006

Definitions and selection criteria for <i>sigma</i> catastrophe statistics:	
Natural catastrophes	Loss events triggered by natural forces
Man-made disasters	Loss events associated with human activities
Total losses	Losses with a direct economic impact
Insured propertyclaims	Part of total loss covered by property insurance
Minimum selection criteria:	
Total losses	USD 80m
Or: Insured property claims	Shipping: USD 16.1m Aviation: USD 32.2m Other: USD 40m
Or: Casualties	Dead or missing: 20 Injured: 50 Homeless: 2000

편집자 주

스위스재보험

스위스재보험은 세계적인 주요 재보험회사이자 가장 다각화된 사업을 가진 세계적인 재보험회사로서, 세계 30 개국 이상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1863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창립된 스위스재보험은 기업과 발전에 필수적인 위험관리를 가능케 해주는 금융서비스 상품들을 제공한다. 재산과 상해 및 생명과 건강사업들을 위한 스위스재보험의 전통적인 재보험상품과 관련 서비스들은 보험을 기반으로 한 기업금융 솔루션과 종합적 위험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서비스들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 's)로부터 "AA -", 무디스로부터는 "Aa2", 그리고 에이엠 베스트(A.M. Best)로부터는 "A+" 등급을 각각 부여받고 있다.